

## 코로나 19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시46:1-11

지난주 추석 연휴,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확진자가 하루에 3000명을 넘었다고 한다. 코로나 19의 치사율이 독감 이하라고 해도 여전히 세계를 위협하는 팬데믹인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미국 여행도 백신 접종 완료증을 보여야만 할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수많은 자영업자들 타격, 금요일 저녁 백채 김치 찌개, 손님이 현두 명밖에 없다. “인원 제한을 이렇게 심하게 하는데 누가 밥 먹으로 옵니까” “맘 카페 등에서 신고하면 300만 원 벌금내야 해요.” 맘 카페라는 좌익 감시 체제 괴물이 사람들의 활동을 막고 있다. 곳곳에서 이런 비인간적인 감시, 죽음의 공포, 영업 부진, 재정 악화, 부동산 폭등, 국가 부채 급증, 마땅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말 그대로 환난 중의 환난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마르티 루터가 작사한 찬송가를 불렀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르틴 루터(1483-1546)

루터는 1483년 독일 작센 주의 아이스레벤(Eisleben)에서 태어났다. 법률가가 되려고 공부하다가 1507년(24살) 카톨릭 신부가 되어 1513년부터(30세) 신학 교수가 되어 가톨릭 신학을 강의함, 그러나 시편과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읽으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발견함.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 대학교 부속 교회당 문 앞에 <95개 논제>를 붙이면서 의도하지 않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됨.

1521년 1월 3일 카톨릭 교회의 로마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받음

1521년 1월 27일 신성로마제국 보름스 회의에서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받았으니 거부하자 카를 5세는 루터를 추방함

프레데릭 선제후의 도움으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함. 9개월 동안 신분 위장, 독일어 신약성경 번역  
그러는 와중에 1524-1525년의 농민 전쟁, 처음에 농민들 편, 나중에 영주들 편, 극심한 피로  
1525년에 전직 수녀와 결혼함, 또 한 번의 큰 파문

1517년(34살) 이후 10년이 지난 1527년(44살)은 그의 생에서 가장 힘든 해

4월 22일 설교하다가 어지럼증이 생겨서 더 설교를 못하게 됨

6월 6일 친구들과 식사하다가 극심한 이명 증세, 죽게 되었음을 직감함

겨우 체력을 회복하였지만 크게 낙심하는 마음

심장 문제, 내장 문제 등으로 죽음의 공포가 계속해서 그를 엄습하였다.

그의 말: “나는 1주일을 사망과 지옥 가운데서 보냈습니다. 온 몸이 아프고 여전히 지금도 몸이 떨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의해 버림을 받고 자포자기의 폭풍우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으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즉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느냐고 하소연하며 원망함  
그런데 사정은 더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중세 시대 가장 무서운 병, 흑사병이 독일에 퍼지면서 그가 살던 비텐베르크에도 들어옴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났지만 루터와 그의 아내는 병자들을 돌보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을 개방하여 병원으로 쓰게 하였다. 당시 그의 아내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그들은 매일 보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맏아들 한스가 중병에 걸렸다.

말 그대로 사방에 도처에 죽음이 깔려 있었다.

그에게 피난처가 필요하였다. 이때 그의 영혼에 피난처를 제공한 것이 바로 시편 46편이다.

그는 46편을 음미하고 해석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른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시를 기록하게 되었다.

1.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 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대장)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왕국 영원하리라

지난 1년 8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 19의 공포 속에서 살아 왔다. 매일 죽는 소리, 확진자 소식, 탄식 소리, 방역 강화 소식, 예배 금지 소식, 경제 피해, 모임 불가능, 우울증  
오늘 <코로나 19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시46편의 기자가 극심한 환난 중에서 발견한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 46편의 배경

저자는 모른다.

여러 사람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사람들의 침략을 받은 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출을 받은 사건(왕하18-19, 대하32; 사36-38), 시인이던 히스기야가 이 시건 이후에 47-49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BC 721년 아시리아는 북 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으로 내려와 유다를 위협함

아시리아 왕 산헤립, 그의 장군들을 보내 위협함, 내가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지 않았느냐? 우리 신들이 그들의 신들보다 강하지 않느냐? 네가 믿는 여호와가 과연 우리 신들보다 강하냐? 너희를 내 손에서 구출할 수 있느냐? 조롱함.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며 기도함, 대언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 사38:36, 주의 천사가 나가서 185,000명을 침, 송장이 되고 말

이 시편은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주어졌고 회중 예배 때에 노래로 불려졌다.

핵심 주제: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계신다(1, 5, 7, 11).

이러한 확신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시편 기자는 주님께 대해 말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 준다.

####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1-3)

피난처(refuge), 1(바위로 된 보호처), 7, 11(요새, 높은 성) (\*)

우리의 상황이 심히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 도피처, 도피 도시  
시61:3; 62:5-8; 142:5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저 위로만 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

사람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29:11; 68:35; 사40:31).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이다.

루터의 삶, 사방에 죽음, 본인도 죽을 병,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어려움 삶을 이기며 투쟁하면서 곳곳이 살아간다.

1527년 이후 19년을 더 살다가 1546년에 죽는다(63세). 아주 오랜 살며 많은 일을 하였다. 병상에 누워 죽으면서 그가 한 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구원, 육신의 구원. 우리 하나님은 죽음에서 우리를 도피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종교개혁 이후 거의 매일 죽음이 그를 엄습하는 악한 상황 속에서도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주님께로 갔다.

그의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것을 코로나 19의 역병 속에서 그를 생각하며 불러 보자.

1절의 곤난(trouble): 빠져나갈 수 없는 구덩이

히스기야 시대 아시리아 군대의 장군들이 와서 그를 위협함. 이사야 대언자가 그에게 준 조언(왕하 19:7). 보라, 내가 그에게 돌풍을 보내리니 그가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하였더라.

## 2-3절 읽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God is in control. (\*)  
우리의 주변 환경은 변할 수 있어도 자신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한다(사54:10).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가 그 즉시 만날 바로 그 도움이시다.

### 2.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강(4-7)

장면이 예루살렘으로 바뀐다. 아시리아 군대의 침략, 모두가 성 안에 갇혀 있다. 팔레스타인 땅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물이 가장 중요하다. 대다수 고대 중요 도시는 강을 끼고 지어지는데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다. 2700년 전에 히스기야는 지혜롭게 지하수 공급 시스템을 만들었다(대하32장). 기드론 시내의 기혼 샘과 실로암 연못을 연결함(왕하20:20; 대하32:30). 길이 533m, 높이 차가 30cm, 항상 물이 넘침 1838년 미국인 로빈슨 발굴함. (\*) (\*)

바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의 강이라고 말함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36:8; 65:9; 87:7).

하나님의 백성은 숨겨진 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물을 마시며 살았다. 광야 40년 쪼개진 반석의 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도와주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도와주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같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예루살렘 자체는 요새, 거룩한 도시, 성전이 있는 곳

그러나 이런 사실이 그들을 돕지 못한다.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렘7:1-8).

5절을 보라.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 이른 새벽에 그들을 도우시는 도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도움이라고 고백하며 예배를 드린다.

6절: 이교도들 1차적으로는 아시리아 사람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진화론, 동성애, 낙태, 차별 금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와 재산을 강탈하는 자들

그러나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에 녹아내리게 된다. 지금은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7절: 군대들의 하나님, 이교도들의 군대가 많아도 군대들의 하나님이 이들을 대적하신다. 천사들,  
성도들, 심지어 일월성신 모든 창조물이 그분의 군대들, 천사까지 동원하신다(히스기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 3.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8-11)

이제 예루살렘 밖의 들판을 보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가서 18만 5천 명을 죽이니 그들의 시체와  
무기가 지푸라기처럼 흩어졌다. 성도들이 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나가서 이들을  
다 무찌르고 백성에게 위로를 준다. 8절을 보라. 황폐한 곳들(desolations)

9절을 보라. 주님 앞에서 사람의 모든 무기는 다 산산조각 나고 만다.

주님의 말씀(10):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안심하고 나를 믿으라. 가만히 있으라.

히스기야의 기도(왕하19:19), 그러므로,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간청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땅의 모든 왕국이 주 곧 오직 주만 {주}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우리가 우리 손을 무언가를 하지만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시다(11).

야콥의 하나님(7, 11): 창세기 야콥의 기사를 보라. 그 역시 얼마나 큰 어려움을 일생 동안 당하는가?  
수도 없이 목숨의 위험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잃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손자/손녀들과 즐거운 여생을 보내게 하신다.

어려움이 올 때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 할 때가 있다. 이때를 분별하고 우리 손을 떼어야 한다.

10절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 결론

우리 삶에서 특별히 어떤 때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즉 조용히 손을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할 때가 있다.

루터의 삶에서, 야콥의 삶에서, 히스기야의 삶에서 이런 때가 있었다.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때가 바로 이런 때가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내년 대통령 선거,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홀로 큰일을 하신다.

마르틴 루터, 야콥, 히스기야의 삶이 이를 증명한다.

코로나 19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